

# 이익섭(1975/1991)의 “어근” 개념에 대하여

최 기 용<sup>1)</sup>

— 차 례 —

1. 머리말
2. 이익섭의 “어근” 개념
  - 2.1. 이익섭의 “어근” 개념 소개
  - 2.2. 세 종류의 “어근”
3. “어근” 개념 검토
  - 3.1. 한자의 경우
  - 3.2. 분리형의 경우
  - 3.3. 비분리형의 경우
4. “어근” 또는 “어근적 단어”의 분석

## 1. 머리말

— Spencer(1991:461, n10)

- (1) 가. 어근: 단어의 핵심 의미를 지니는 단일 형태소(a single morpheme which bears the ‘core’ meaning of a word).  
나. 어간: 굴절 접사가 붙게 되는 단어의 부분(part of a word to which inflectional affixes are added).  
다. 어기: 굴절, 파생 혹은 합성 등 여타의 다른 형태소가 붙게 되는 부분(part to which any other morpheme is added (inflectional, derivational, or compound)).

— 안상철(1998:25-27)

- (2) 가. 어근: 어휘의 형성 과정에서 더 이상 세분할 수 없는 최소의 단위이며 가장 중심적인 요소. 모든 접사를 제외한 핵심적인 형태소.  
나. 어간: 굴절 접사가 붙을 수 있는 중심 요소. 내부 구조상 파생 접사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요소.  
다. 어기: 새로운 파생이나 굴절 어느 어휘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중심(핵심) 요소.

한편 한국어 전통 문법 상의 용어 사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이익섭(1975/1991)의 “어근” 개념은 위와 다르다. 본 발표에서는 (가) 이익섭의 연구에서 “어근”으로 규정된 어휘들의 유형을 살펴 보고 (나) 각 유형에 대해 이익섭 식의 “어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

1) 광운대학교

적절한가를 살펴 본 다음, (다) 이익섭 식의 “어근” 개념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라) 이익섭에 의해 “어근”으로 불리었던 어휘들의 성격이 어떻게 포착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최근의 견해들을(김일환(2000, 2003), 시정곤(2001), 채현식(2001) 등)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2. 이익섭의 “어근” 개념

### 2.1. 이익섭의 “어근” 개념 소개

우리는 어느 경우나 屈折接辭(語尾)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自立形式도 아닌 단어의 中心部를 語根이라 부르고자 한다. (이익섭(1975/1991:35))

	이익섭의 “어근”	(1, 2)의 “어근”
‘높-’	어근이 아님	어근임
‘깨끗-’	어근임	어근임

(3) 가. 깨끗(하-), 소근(거리-), 움직(이-), 거르스름(하-), 가증(스럼-), 갑작(스럼-), 감미(롭-), 공교(롭-), 꿈지럭(대-), ...

나. 안(眼), 경(鏡), 초(草) 목(木), 옥(沃), 람(濫), ...

(4) 가. \*교실이 참 깨끗었다.

나.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소근었다.

다. \*그의 행동이 아주 가증었다.

라. \*그의 목소리가 아주 감미었다.

마. \*철수가 자꾸 꿈지럭었다.

(5) 가. 철수가 책이 많다.

나. 문이 열려 있다.

다. 철수의 방이 제일 크다.

(6) 가. 철수가 갖고 있는 땅이 옛날에는 옥토(沃土)였다.

나. \*철수가 갖고 있는 땅이 옛날에는 옥(沃)였다/옥(沃)았다.

(7) 가. 강물이 홍수로 인해 범람(氾濫)했다.

나. \*강물이 홍수로 인해 람(濫)았다/람(濫)이었다.

### 2.2. 세 종류의 “어근”

(3가)에 속한 어휘들 중 이른바 “어근” 분리 현상을(임흥빈(1979/1998)) 보이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 전자를 “분리형 어근”, 후자를 “비분리형 어근”으로 부르기로 한다.

— 특수조사의 경우 —<sup>2)</sup>

- (8) 가. 철수 방이 깨끗은 하지만, 들어가기가 싫다.  
 나. 피부 색깔이 약간 거므스름은 하지만, 그런 대로 봐줄 만 하다.  
 다. ?철수와 영희가 방에서 소근만거리고 나오지를 않는다.  
 라. ?철수가 방에서 계속 꿈지럭은대고 있다.
- (9) 가. \*철수가 마지 못해 움직은이고 있다.  
 나. \*나에게는 그의 행동이 가증만스럽다.  
 다. \*들려오는 음악이 감미는로운데, 마음은 울적하다.

— 부정어의 경우 —

- (10) 가. ??철수 방이 깨끗 안 하다.  
 나. ??피부 색깔이 거므스름 안 하다.  
 다. ?\*철수와 영희가 방에서 소근 안 거리고 조용히 있다.  
 라. ?\*철수가 방에서 꿈지럭 안 댄다.
- (11) 가. \*철수가 움직 안 이고 있다.  
 나 \*나에게는 그의 행동이 가증 안 스럽다.  
 다. \*들려오는 음악이 감미 안 롭다.
- (12) 가. 내가 그 일을 내일까지 끝내는 것이 가능한 하지만, 하기가 싫다.  
 나. 영희가 다정은 하지만, 만나기가 싫다.  
 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만거리고 있다.  
 라. 철수가 그냥 머뭇만대고 있다.
- (13) 가. \*철수가 눈물을 글썽만이고 있다.  
 나. \*나는 너가 자랑은스럽지만 좀 더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다. \*나무 때는 냄새가 향기는롭다.

### 3. “어근” 개념 검토

#### 3.1. 한자의 경우

Q: “어미와의 직접적 결합성” 여부를 한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A: “어미와의 직접적 결합성” 여부는 원래 서술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한국어에서 개별 한자가 서술어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조건을 개별 한자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원래의 성격 상 어미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결합될 여지가 없는 표현인 한자에 대해 위 조건을 따지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Q: 그럼 왜 이익섭은 개별 한자에 대해 “어근”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려 했을까?

2) 김일환(2000:216) 등 참조.

A: 한자어를 형태소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근”이라는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개별 한자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잠정 제안:** 개별 한자 중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인식에 한국어 지식으로 편입된 한자들(‘방’, ‘문’처럼 [+자립])으로 인식되는 것 그리고 ‘-적’처럼 접미사로 인식되는 것 등)을 제외 한 그 외의 한자는 한국어 지식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 3.2. 분리형의 경우

이익섭의 “어근” 개념의 두 조건: (가) 비자립성 조건 그리고 (나) 어미와의 직접 결합 조건

이익섭의 “어근” 개념에 “비자립성 조건”이 들어간 이유는 자립 형식인 명사들을 “어근”으로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즉 “어미와의 직접 결합 조건”에만 의하면 일반 명사와 분리형 “어근”이 같은 양상을 보인다.

(14) 가. 철수가 과 대표이었다.

나. \*철수가 과 대표었다.

고로 둘을 구분해 주기 위해 일반 명사가 [+자립]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분리형의 경우 분리되는 경우의 양상은 특수조사와 결합도 되고 부정어에 의해 ‘하-’와도 분리되므로 [+자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분리형은 이익섭 식의 “어근”으로 규정될 수 없다.

--분리형의 ‘하-’의 처리: 파생접미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익섭·채완(1999:93)). 그러나 이런 처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하-’를 파생 접사로 보면 분리되는 경우 분리형의 ‘하다’는 파생접사와 굴절접사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는 접사의 개념 상 맞지 않는 결과이다.

둘째, 분리되지 않는 경우의 ‘하-’는 접미사로 간주되는데, 분리되는 경우 접미사로서의 성격이 그대로 지켜질 수 없다.

**대안:** 분리형의 ‘하-’는 본 용언 ‘하-’와 마찬가지로 어간으로 규정한다.<sup>3)</sup>

### 3.3. 비분리형의 경우

3) 그에 반해 분리형의 ‘-거리’나 ‘-대’는 접미사로 본다. ‘하-’와 ‘-거리’, ‘-대’ 간의 이런 차이는 (10가, 나)와 (10다, 라)간의 대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본다.

비분리형은 이익섭의 두 조건을 다 지키므로 “어근”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1, 2)에서와 다른 내용의 “어근” 개념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1, 2)에서와 같은 정의로도 필요한 구분이 가능하다.

- (15) 가. 파생 접사 및 어미가 다 붙을 수 있는 경우: ‘높-’ 따위  
 나. 파생 접사만 붙고 어미가 붙는 경우는 없는 경우: ‘가증-’ 따위  
 다. 어미만 붙고 파생 접사가 붙는 경우는 없는 경우

	(1, 2)에서의 용법	이익섭의 용법
(16) 가. (15가):	어간도 되고 어근도 됨	어간으로만 정의됨
나. (15나):	어근으로만 정의됨	어근으로만 정의됨
다. (15다):	어간으로만 정의됨	어간으로만 정의됨

#### 4. “어근” 또는 “어근적 단어”의 분석

“어근” 또는 “어근적 단어”로 불리는 표현들이 갖는 성격들

- (17) 가. 명사인 것 같으나 일반 명사와는 달리 자립해서 쓰이는 적이 없고 다른 명사와 항상 함께 나타난다.  
 나. 그 외 ‘하-’ 및/또는 ‘-적’과 어울려 나타난다.  
 다. ‘하-’와 결합이 가능한 경우 이른바 어근 분리 현상이 나타나나 ‘-적’의 경우는 어근 분리 현상이 안 나타난다.

- |   |  |
|---|--|
| (18) 가. <u>영세</u> 상인, <u>긴급</u> 조치, <u>강력</u> 진압, ... | ‘하-’와 결합이 가능한 경우                       |
| 나. <u>거국</u> 내각, <u>통속</u> 소설, <u>거시</u> 경제, ...      | ‘-적’과 결합이 가능한 경우                       |
| 다. <u>급행</u> 열차, <u>고속</u> 주행, <u>공안</u> 사범, ...      | ‘하-’와의 결합도 불가능하고<br>‘-적’과의 결합도 불가능한 경우 |
- 채현식(2001:251-252)

- (19) 가. 정부의 조치가 강력은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나. ?사업 규모가 영세는 하지만 실속이 있다.  
 (20) \*거국은적 지원, \*통속은적 처리, ...

위와 같은 성격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 (21) 가. 특수조사와의 결합 및 (18)에서와 같은 명사 연결 구성이 가능한데 왜 자립으로는 쓰이지 않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구조격조사와의 결합은 왜 불가능한가?  
 나. ‘하-’ 구성의 경우는 특수조사의 결합이 가능한데, ‘-적’의 경우는 왜 안 되는가?

다. (18)의 각 경우들의 차이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17)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표현을 단순히 “어근”이니 “어근적 단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은 (21)과 같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전자는 (1, 2)에서와 같은 “어근”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개념으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자립이 아닌 “어근”이라는 용어가 자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단어”와 함께 어울린다는 점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

한편 (17)과 같은 성격의 포착을 위해 이익섭의 경우처럼 “어근”이라는 개념을 어휘가 갖는 기본 성질 중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sup>4)</sup> 이 방안에 의하면 문제의 표현들은 [+어근]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그런 성격에 의해 자립으로 쓰이지 못하며, 어미와 직접적으로 결합하지 않게 된다. 이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22) 가. ‘하-’ 구성의 경우 자립으로 쓰이지 못하면서도 왜 특수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한가는 설명하지 못한다.

나. ‘하-’ 구성의 경우 왜 ‘하-’하고 결합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다. [자립]의 여부가 어휘가 갖는 기본 성질이라고 볼 때, 부분적으로 그런 성질에 의해 규정되는 [어근]이라는 성격을 어휘의 기본 성질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1)의 각 질문에 대한 본 발표자의 답은 다음과 같다.

— (21가)에 대해:

(23) 가. 명사 연결 구성의 앞 표현의 범주를 [+N]으로 본다.

나. 격은 통사부에서 명사 즉 [+N, -V]의 성격을 가지는 표현에만 부여된다.

다. (23가)와 (23나)에 의해 문제의 표현에는 격이 부여되지 못하며 고로 다른 일반 명사처럼 자립으로 나타나지 못한다.<sup>5)</sup>

— (21나)에 대해:

(24) 가. 특수조사의 결합 생산적이라는 점에서 (21나)의 차이는 ‘하-’ 구성이 통사부에서 생성되는 반면, ‘-적’은 어휘부, 즉 파생으로 본다.

나. ‘하-’ 구성은 발표자의 핵기저부가가설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K. Choi(1991), 최기용(1993, 1996, 1998, 2001)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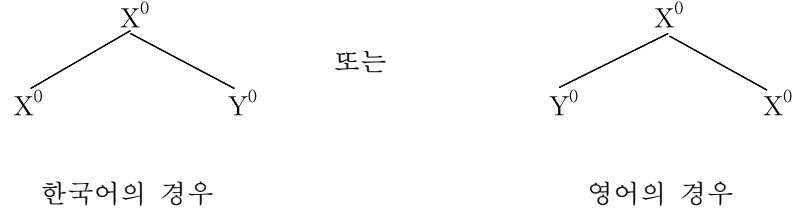
핵기저부가가설의 주요 내용

4) 이에 반해 (1, 2)에서의 “어근” 개념은 기본 개념이 아니고 도출적 개념이다.

5) 그에 반해 같은 한자어 중에서도 자립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온전한 명사의 성격 즉 [+N, -V]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5) 가. 어휘는 XP를 선택하는 가능성 외에 X를 선택하는 가능성도 갖는다.

나. 어떤 어휘 X가 Y를 선택하는 성질을 갖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핵기저부가구조를 생성한다.



— (21다)에 대해:

(25) 가. 핵기저부가구조나 파생은 어떤 어휘 X의 개별 성질에 의한 것이다.

나. 즉 (18가)는 문제의 어휘들이 ‘하-’를 선택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고,

다. (18나)는 ‘-적’이 문제의 어휘들을 선택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며,

라. (18다)는 문제의 어휘들이 ‘하-’를 선택하지도 않고 ‘-적’에 의해 선택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갖는 의의

(26) 가. 자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의 표현의 범주가 [+N]으로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점과 격부여의 일반적 성격에 의해 도출된다.

나. 문제의 표현이 특수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의 표현이 [+N]의 성격을 가지고 통사부 구성이기 때문이다.

다. 어미와 직접 결합하지 못하는 성격은 문제의 표현이 ‘하-’를 선택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라. 고로 이익섭 식으로 [어근] 개념을 어휘의 기본 자질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근적 단어”라는 용어도 도입할 필요가 없다.

남은 문제

(27) (18)에서와 같은 명사 연결 구성을 합성어로 보아야 하나 통사적 구성(채현식 (2001) 등)으로 보아야 하나?

참 고 문 헌

- 김일환 (2000), 어근적 단어의 형태 · 통사론. 한국어학 11:213-226.  
 김일환 (2003), 국어의 어근과 어근적 단어. 형태론 5:67-80.  
 시정곤 (2001), 명사성 불구어근의 형태 · 통사론적 연구. 한국어학 14:205-234.

한국언어학회 2003년 여름 학술대회 (2003. 7. 1. ~ 7.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안상철 (1998), 형태론. 서울: 민음사.

이익섭 (1975/1991),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이병근·채완·김창섭 엮음. 형태, 25-43. 서울:태학사.

이익섭·채완. (1999), 국어문법론강의. 서울:학연사.

임홍빈 (1979/1998), 용언의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55-76. 국어문법의 심층 2-명사구와 조사구의 문법, 437-461. 서울: 태학사.

채현식 (2001), 한자어 연결 구성에 대하여. 형태론 3:241-263.

최기용 (1993), 한국어 장형부정구문의 구조. 생성문법연구 3:25-78.

최기용 (1996), 한국어 특수조사구성의 구조. 언어 21:611-650.

최기용 (1998), 한국어의 부정극어 '아무'에 대하여. 생성문법연구 8:313-341.

최기용 (2001), 한국어 수량사 구성의 구조와 의미: 비속격형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37:445-482.

최형용 (2002), 어근과 어기에 대하여. 형태론 4:301-318.

Choi, Kiyong (1991), A theory of syntactic X0-subcategor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Choi, Kiyong (2000), Korean VP-focus construction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0:329-356.

Spencer, Andrew (1991), *Morphological Theory*. Oxford: Blackwell.

Williams, Edwin (1981), On the notions of "Lexically Related" and "Head of a Word" *Linguistic Inquiry* 12:245-274.